

人文科學과 解釋學

朴 異 汶

(미국 시몬스大 철학교수 · 現 仁大 교원교수)

(1)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哲學的 문제는 대체로 그 학문의 方法論的 문제로 귀착한다고 본다. 그것은 한 現象에 대한 認識의 패러다임을 自然科學의 方法論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그러한 方法論이 人文科學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만약 그 方法이 같지 않다면 과연 그러한 學問이 科學, 즉 엄격한 의미로써의 認識, 다시 말해서 學問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해석 되고, 경우에 따라 人文科學은 그 성질상 엄격한 科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며, 따라서 넓은 뜻에서의 科學 즉 認識은 自然科學에서의 認識에서 그 모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 이 강연에서 내가 뜻하고자하는 문제는 위와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비의 성격을 고찰하고 그것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좀 더 속고해 보면 人文科學을 둘러싼 哲學的 문제는 오로지 方法論에 그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에 앞서 人文科學이라는 分野의 성질과 그것이 뜻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다.

人文科學은 흔히 哲學, 文學, 言語學, 藝術, 歷史學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大學에서 실행되고 있는 과목분류로부터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때 人文科學에 포함되었던 「心理學이 이제 自然科學에 소속되고 있듯이, 歷史學도 경우에 따라 혹은 어떤 理論의 입장에 따라 人文科學에서 이탈시키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人文科學의 對象 자체가 아직도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생각을 더 밀고나가면 비단 歷史學뿐만 아니라 藝術 그리고 哲學까지도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繪畫, 演劇, 音樂이 어째서 人文科學인가? 哲學이 自然科學은 물론 文學研究와 같은 성질의 학문일 수 있는가? 이와같이 생각해 갈 때 人文科學의 分野를 엄격히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 자체는 같은 哲學的 해명을 별도로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들의 주제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다소 독단적이거나 文學을 人文科學의 가장 典型的인 分野로 설정 前提하여, 이를 중심으로 人文科學의 哲學的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文學이 文學作品을 對象으로하는 學問이라면, 그러한 對象은 自然科學이 차지하고있는 對

* 본논문은 1980년 12월 2일에 거행된 본 연구소 제 1회 인문과학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임.

象과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對象을 認識한다는 것은 自然現象을 認識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事物과 意識을 前提로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言語와의 관계에 대한 形而上學的인 문제가 있지만, 認識對象은 일단 時空 속에서 존재하는 自然現象으로서의 事物과 時空을 초월하는 意味的 次元에서 理解 될 수 있는 文化現象으로서의 言語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人文科學의 認識對象이 言語라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여기서 言語라고 할 때, 그것은 文法的 혹은 語源的 研究의 對象인 自然言語를 뜻하지 않고 그러한 言語를 통한 陳述(discourse)을 가르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人文科學의 認識對象인 陳述를 편의상 텍스트라고 부르기로 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陳述는 陳述者의 意圖 자체나 혹은 그 陳述의 理解者인 聽取者 혹은 讀者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言語로 敘述된 객관적인 發言 혹은 記錄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한 텍스트, 예를 들어 한 개별적인 文學作品 혹은 文學作品 一般은 어떤 종류의 認識의 對象이 될 수 있는가? 토도로브(Todorov)는 그의 『構造詩學』에서 文學研究의 양상을 解釋(interpretation)과 詩學(poétique)으로 區分한다. 解釋은 개개 作品에 대한 註釋, 說明등 일반적으로 批評이라고 불리우는 활동이며, 詩學은 研究의 焦點을 개개의 作品에 두지 않고 文學作品一般에 두어 한 텍스트를 文學텍스트로 만들게 하는 文學的 屬性(literary property)을 抽出해 내는 作業이다. 모든 文學作品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普遍的으로 갖고있다고 가정된 그러한 文學的 屬性을 文學性(littéralit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作業은 自然科學者가 개별적인 現象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같은 종류의 개별적인 現象을 說明하기 위해서 이른바 法則(law) 혹은 理論(theory)이란 抽象的인 構造를 발견하려는 일과 論理上 동일하며, 이른바 詩學이 발견코자하는 文學性은 自然科學이 발견하려는 法則이나 理論과 그 성질이 똑같다. 른것은 自然科學이 목적으로하는 法則이 事物自體 속에 內在된다고 전제되는데 반해서 詩學이 다만 다목적으로하는 法則은 約束的(conventional)인 것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일 뿐이며, 自然科學이 이미 發見된 法則에 의해서 개별적인 現象을 因果的으로 說明하는데 비추워, 詩學은 이미 發見한 規律에 의해서 개별적 文學作品을 規範的으로 說明한다는 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토도로브가 詩學을 文學科學이라고 부른 데 대해선 충분히 납득이 간다. 토도로브는 이와같은 뜻에서의 詩學은 비단 文學作品에만 적용될 수 있지 않고 그밖의 言語로 서술된 분야, 좀더 정확히 말해서 哲學, 歷史, 기타 모든 記錄物에도 궁극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이와 같은 뜻에서의 詩學 즉 文學科學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토도로브 以前에도 쓰련의 이른바 形式主義者들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作業은 우리들의 知的 好奇心을 만족시켜 준다. 뿐만 아

1) 츠베당·토도로브『構造主義詩學』, 郭光秀譯, 「文學과 知性社 1977, (pp. 11-30).

나라 文學이라는 陳述의 특수한 性格을 밝혀내어 單宗류의 陳述과의 보다 客觀的 區別도 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人間의 意識이나 그것이 指向하는 바를 암시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를 들어 文學의 詩學은 그것 만으로는 具體的인 文學作品의 의미나 기능을 만족스럽게 밝혀주지는 못할 것이며, 자칫하면 無모한 知的 유희에 끝날 수도 없지않다. 言語로서의 文學作品이 어떤 意圖의 表現이며, 그러한 意圖는 傳達과 理解를 전제로하고 있느니만큼 그 存在양식이 自然現象처럼 因果關係에 의해서 敘述되고 說明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解釋의 對象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文學研究는 개별적 作品의 解釋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설사 文學研究의 對象이 개별적인 作品이 아니라 文學一般이라 할 때도, 이러한 文學研究는 개별적인 作品을 解釋한 후에 가능한 것이며, 또 그러한 研究는 개별적인 作品解釋을 보다 정확히 시정해 주는 한에서 그 뜻이 있다. 따라서 文學性에 초점을 두는 이른바 詩學도 개별적 作品의 解釋에 기여하는 한에서 그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결국 文學研究에 있어서의 문제는 개별적인 解釋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그러한 것은 달리 말해서, 어떠한 解釋의 方法이 타당할 수 있는가의 哲學的 문제로 나타난다.

(II)

解釋이란 무엇이며 어찌하여 解釋이 문제가 되는가? 解釋은 한 텍스트의 뜻 혹은 意味를 알아내는데 있다고 일단 定義 될 수 있다. 그러나 意味를 알아낸다는 말의 뜻은 애매하다. 첫째 그것은 한 텍스트의 文章을 읽을 줄 안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해 놓고 보면 구태여 解釋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李箱의 『날개』라는 텍스트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解釋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조이스 (Joyce)의 『유리시스』도 英語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一次적 의미에서의 解釋은 한 텍스트를 이루는 하나의 自然語의 文法과 單語들의 뜻을 알고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텍스트, 특히 文學 텍스트를 앞에 놓고 解釋이 늘 문제 되는 이유는, 解釋이란 말이 위와같은 뜻으로서의 텍스트의 意味를 안다는 것과는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텍스트를 이루는 하나의 自然言語의 文法이나 낱말을 아는 것만으로서 그 텍스트의 뜻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文法的 혹은 單語的 뜻에 환원 될 수 없는 한 텍스트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마르크스의 혹은 프로이트나 사르트르의 또는 촘스키의 뜻에서의 上層意味와 下層意味, 혹은 表層意味와 深層意味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 텍스트의 文法이나 單語의 意味를 表層意味로, 文學研究家가 알고자하는 意味를 深層意味라 부를 수 있겠다. 풀이 해 말하자면 우리가 쉽사리 知覺할 수 있는 한 社會構造나 혹은 한 개인의 行動의 진정한 意味는 직접 知覺될 수 없는 社會構造나 혹은 한 개인의

無意識 또는 原初的 選擇에 의해서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한 텍스트의 文法이나 單語의 진정한 意味도 一次的으로 밝혀지지 않는 深層意味에 비추어 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言語, 더욱이 한 텍스트의 意味가 그러한 言語의 發言者, 作品의 意圖, 歷史的 또는 社會的 文脈과 깊고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 낱말, 한 陳述 한 텍스트의 의미는 單意的 혹은 一線的의 아니라 多意的 즉, 쉽게 획일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象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言語의 深層意味는 直接 발견될 수는 없고, 오로지 상세한 주의와 分析을 거친 후에야 발굴 될 수 있다는 결론은 자명한 논리가 되겠다. 이러한 意味의 발굴작업이 곧 참다운 뜻으로서의 解釋이며, 그러한 解釋은 해결 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 것이다. 文學作品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言語의 多意性 혹은 애매 모호성이 최대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文學研究에 있어서 解釋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됨은 당연한 이치가 된다.

그렇다면 文學作品의 解釋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방법이 가장 타당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해서 文學研究의 한 중요한 方法은 무엇이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른바 文學批評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졌었고 또 새로이 주장되고 있는 몇가지 解釋方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作品을 놓고, 「이것은 X라는 哲學을 나타낸다」든가 혹은 「이것은 Y라는 倫理를 표현한다」, 또는 「이것은 Z라는 感受性」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른바 전통적 講壇批評이 대충 이와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만약 한 文學作品의 意味가 哲學的 意味, 倫理的 意味, 또는 感性的 意味로 환원될 수 있다면, 그러한 意味는 보다 명료한 방식으로 非文學的 表現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文學은 잘해야 表現의 裝飾의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며, 따라서 文學의 獨自의 意味, 文學의 存在理由가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종래의 批評方法은 그것만으로 만족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講壇批評을 일단 문제 밖에 놓아 둘 때 대충 세가지 解釋理論이 현재 서로 다투고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편의 상 그것들을 각기 (a) 精神分析學的 접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因果的 方法, (b) 構造主義的 접근에서 가려 낼 수 있는 言語的方法, (c) 實存主義的 접근에서 들어나는 現象學的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解釋理論들은 각기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精神分析學의 큰 공적은 無意識의 발견에 있다. 意識構造에 관한 이 學說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지각할 수 있는 意識은 無意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意識的 表現의 진정한 意味는 그것을 決定한다고 前提된 無意識의 목적, 욕망, 지향성 등과의 연결이 보여졌을 때 밝혀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意識的 表現인 모든 言語의 意味는 無意識의인 욕망, 목적, 지향 등에 還元된다. 이와 같이 볼 때 作品의 解釋, 즉 深層意味의 해명은 직접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言語의 意味를 言語以前의 無意識의 心理現象에 還元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듀랑(Durand)이 精神分析學的 解釋을 設立的 解釋學과 구별하여 還元的 解釋學²⁾라고 부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된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이와같은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은 리비도라고 하는 物理的 現象에 환원될 수 있는 것과 無意識과의 關係, 그리고 無意識과 意識과의 關係를, 마지막으로 意識과 그것에 의한 言語表象의 關係를 因果的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解釋의 작업은 因果的 關係를 찾아 내는 일이 된다. 똑같은 前提를 마르크스主義的 文學藝術觀과 解釋理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극히 일방적이며 도식적이긴 하나 마르크스主義的 文學觀은 文學現象을 意識 혹은 이데오로기의 上部構造로 下部構造, 즉 진정한 社會構造를 나타내는 經濟社會構造의 反映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物理的 構造와 生理的 構造, 生理的 構造와 無意識의 構造, 無意識의 構造와 意識構造, 意識構造와 言語表現과의 因果的 關係에 대해서는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궁극적인 해결을 찾아 낼 수 없는 形而上學的인 문제로 남아 있지만, 사실 그러한 因果的 關係가 적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가장 日常的인 경험을 통해서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因果關係는 결코 現段階에 있어서 物理學을 비롯한 自然科學에서 이해하고 있는 극히 도식적이며 機械的인 關係로는 밝혀 질 수 없으며, 만약 먼 장래에 과연 모든 現象이 오로지 因果關係에 의해서 說明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의 因果關係는 오늘날 自然科學에서 전제하고 있는 因果關係와는 꼭 다른 성질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와같이 볼 때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的, 解釋理論이나 마르크스의 解釋理論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이 선다.

둘째, 프로이드의 精神分析的 文學작품에 대한 解釋의 입장은 한 作品의 意味를 그 作品 밖에서 찾으므로써 개별적인 文學작품 뿐만 아니라, 文學작品一般의 自律性을 무시하고 이를 文學의 外部에 있는 心理나 또는 社會現象에 의해서 他律的으로 찾으려는데 있다. 똑같은 批判은 마르크스主義的 解釋理論에도 적용될 것이다. 프로이드나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文學研究, 文學작品의 解釋은 文學작品들을 통한 心理學 또는 社會經濟學이 될 것이며, 개별적 文學작品의 意味는 心理的 또는 社會的 의미로 變身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的 批評이나 마르크스의 批評이 前提하고 있는 意識과 그것의 言語的 表現인 文學작品의 因果關係는 사르트르의 實存主義現象學, 그리고 바슈라르(Bachelard)나 그것을 답습한 리샤르(J.P. Richard)의 現象學的 文學批評의 입장에서 비판되고 극복되며, 프로이드나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心理·社會學的 文學批評이 내포하고 있는 文學작品의 他律的 解釋批評에 대해서 바르뜨나 그레마스(Greimas) 등에 의해서 대표

2) Gilbert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Prese Universitaie de France, 1964, pp. 42-61.

되는 構造主義批評에 의해서 비평되고 시정된다.

사르트르는 프로이드의 결정적인 잘못이 意識을 그밖의 存在와 똑같은 성질로 봄으로서 意識現象을 因果的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實存主義는 무엇 보다도 人間存在 양식에 대한 哲學이지만, 적어도 사르트르에 있어서의 實存主義는 意識現象이 因果律에 의해서 設明될 수 없다는 사실, 즉 意識의 自律性 혹은 獨自性을 전제로 하는 存在論이기도하다. 이런 점에서 實存主義는 意識의 先驗的 次元을 전제로하는 認識論인 現象學과 통하며, 人間の 本質을 意識에서 찾고 그러한 人間에 대한 앎은 구체적인 意識現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점으로 보아 人間認識論에서 實存主義와 現象學은 만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實存主義精神分析學의 文學作品 解釋을 現象學的方法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것은 精神分析學, 특히 융의 精神分析學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文學作品에서 그 作品의 作家가 최첨했다고 보는 原始的經驗의 내용을 캐어 내지는 바슈라르나 그와 근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리샤르같은 文學批評의 입장을 역시 現象學的이라고 부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듀랑은 還元的解釋學과 대조해서 「設立的解釋學」이라 불렀던 것이다. 사르트르에 있어서 文學作品의 意味는 그 作品 속에 나타난 그 作家의 이른바 原初的選擇을 드러내며, 그럼으로써 그 人間의 人間됨, 즉 實存姿勢를 알아내는데 있다. 그의 人間哲學에 의하면 人間은 보편적으로, 아니 그의 存在構造上 必然적으로 即自인 동시에 對自를 실현하려고 하는 소위 根本的企圖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企圖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인간각자의 自律的인 選擇에 달려있다. 이러한 選擇을 부득히 일찍 부터 결정해야하는데 그러한 결정이 그 人間의 性格 혹은 人間됨을 나타낸다. 自由 公意識의 表現으로써의 文學作品은 바로 그와 같은 作家의 選擇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 作品의 意味는 그 作家의 原始的選擇, 즉 삶에 대한 態度에서 밝혀지고 찾아진다. 그리하여 그는 가령 『보드레르論』에서 보드레르의 原始的選擇이 스스로의 罪囚執行人, 즉 自虛者가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한 作品을 解釋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한 人間을 아는데 있고 그 作品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 人間의 原始的選擇에서 찾아진다. 한편 바슈라르는 한 作品, 특히 詩에 나타나는 意味는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作家나 詩人の 事物現象에 대한 原始的 경험의 感性的 차원에서 찾아야한다고 전제하고, 한 作品, 한 詩의 올바른 解釋은 각기 그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作家, 그 詩人の 原始的 경험에 접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똑같은 입장에서 리샤르가 뜻한 文學批評은 作品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에 의해서 가장 적절히 표현되는 作家의 感性的經驗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經驗을 통해서 한 作家의 個性을 형성하는 하나의 삶의 原則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과연 이와같은 現象學의 解釋이 滿足스러울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이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의 방법이나 혹은 마르크스의 방법과 다른 점은 後者が 作品과 生理的 드라이브 혹은 社會經濟條件과의 因果的 關係를 찾는 데 반해서, 作品과 그 作品을 쓴 인간의 原始的

態度 혹은 經驗과의 非因果的 實存的이라 할 수 있는 關係를 세우는데 있다. 적어도 우리들의 구체적인 經驗의 차원에서 볼 때 作品과 그 作家의 生理的, 心理的 혹은 社會的 條件과 엄격한 因果關係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할 때, 프로이트나 혹은 마르크스의 文學作品에의 접근 보다는 現象學的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後者도 前者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첫째 作品의 意味를 實存 혹은 人間의 原初的 經驗이라고 하는 作品 밖의 現象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설사 한 作品의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X 혹은 Y라는 原初的 選擇 혹은 經驗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推理가 성립되어도 그것은 반드시 그 作家에 대한 人間姿勢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령 내가 X라는 作品을 썼는데 그냥 별로 특별한 것을 쓰고자해서가 아니라 落書를 하던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것에서 추출되는 人間像이 나의 人間像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現象學的인 입장에서 볼 때 다다이스트들이 카페에 모여 앉아 여러사람들이 써낸 낱말이라든가 혹은 쉐넌스를 우연히 모아 詩라고 할 때 그러한 詩의 意味를 해석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現象學的方法에 있어서의 문제편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現象學的方法은 文學作品은 言語로 된 것이라는 토도로지칼(tautological)한 진리를 간과하고 있다. 作品의 意味는 무엇 보다도 먼저 그 作品을 형성하는 言語의 意味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現象學的 意味가 言語의 意味와 관계지어질 수 있더라 하더라도 두 가지 意味는 결코 同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解釋의 문제, 즉, 文學作品批評에서의 構造主義와 접하게 된다. 文學作品이 텍스트라는 점에서, 특히 텍스트를 형성하는 言語의 의미는 構造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 의식될 때, 作品에의 現象學的接近에서 構造主義的接近으로 바뀌게 된다. 모든 意味는 조만간 言語的인 것이며, 모든 言語는 널리는 文法, 좁게는 쉐넌스 즉, 構文이라는 規則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規則에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개별적인 낱말의 뜻, 나아가서는 하나의 陳述의 뜻, 그리고 한 節의 뜻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言語의 規則은 構造의 역활이며 이러한 構造는 필연적으로 抽象的 屬性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將棋를 둘 때 將棋의 개별적 말들, 그것들의 움직임은 오로지 將棋의 規則을 압으로써 의미가 파악된다. 여기서 將棋의 規則은 그것의 構造에 해당된다. 소쉬르(Saussure)는 言語의 構造와 구체적인 言語行爲를 言語(langue)와 發言(parole)으로 구별하였고, 이러한 區別에 의해서 現代言語學이 출발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言語(langue)는 한 約號(code)에 의해서 이루어진 體系를 가르치며, 이와 반대로 發言(parole)은 그 秩序의 한 具體的 適用을 지칭한다. 構造主義言語學이 體系에 관심을 갖고 있듯이 構造主義文學解釋도 文學作品을 하나의 體系, 더 정확히 말해서 言語(langue)라는 體系에 의한 體系로 본다. 이와같이 해서 構造主義言語學이 한 自然言語의 發音의 構造를 찾아내거나 혹은 文法的 構造를 찾아 내려는 것과 같이 構造主義文學批評이 뜻하는 것은 한 作品의

構造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의 근거는 먼저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한 作品의 뜻은 그러한 構造를 떠나서는 이해 될 수 없다는 前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構造의 發掘은 여러 次元에서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發音의 차원에서, 낱말의 차원에서, 이미지의 차원에서, 文脈의 차원에서, 事件의 차원에서 이야기의 차원에서 또는 人物의 차원에서 分析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分析은 한 가지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次元에서 가능하다. A라는 事件의 B라는 思想, 혹은 C하는 心理등 등의 次元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構造의 分析의 좋은 例를 構造主義者의 대로그인 바르트(Barthes)의 『라신느論』이나 더 나아가 가서는 같은 著者의 발자크 短篇小說에 대한 分析인 『S/Z』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文學作品에 대한 解釋理論으로서의 構造主義는 만족스러운가? 한 텍스트의 構造를 발견한다는 것으로 그 텍스트가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構造主義의 立場에서 볼 때 한 텍스트의 解釋의 문제는 그 텍스트 자체를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텍스트의 作家가 뜻하는 意圖나 그 作家가 叙述하려는 對象 즉 텍스트의 內容을 이룬다는 텍스트 밖의 모든 것을 제외하고 텍스트 自體의 內在的 意味를 밝히는데 있다는 전제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텍스트 自體와 텍스트 밖의 것들과, 텍스트의 內在的 意味와 텍스트의 外的 意味를 구별할 수 있느냐에 있다. 아마도 發音學的인 次元을 제외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텍스트 밖의 것들과 완전히 분리된 獨立인 構造自體의 分析이나 發掘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야기의 次元에서 혹은 이미지의 次元에서 텍스트의 構造를 分析하려면 논리적으로 우선 그 낱말들, 그 진술들이 指摘하거나 뜻하는 言語 밖의 것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發音學的인 次元을 제외하고선 텍스트의 모든 構造의 分析은 言語의 構造的 次元 밖에서만 이해 될 수 있는 意味論的 次元의 理解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한 텍스트의 모든 構造가 밝혀졌다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 텍스트를 解釋했다, 즉 理解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고집한다면 言語의 構造, 즉 體系와, 게임의 體系와를 혼돈함을 含意한다. 가령 將棋는 그 게임의 體系를 압으로서 완전히 理解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現代言語學이 밝혀 준 것 같이 言語도 體系이며, 그 體系 속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낱말이나 陳述이 理解된다. 그러나 言語의 理解는 體系를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言語는 언제나 무엇을 지칭하거나, 무엇에 대한 體系가 될 수 있지만 將棋는 무엇을 지칭하거나 무엇에 대한 體系가 아니다. 텍스트의 構造를 안다는 것은 그 텍스트의 뜻을 안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構造主義의 解釋理論의 개척과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이트의 精神分析學的 解釋이나 마르크스의 解釋은 물론 現象學의 方法이나 構造主義의 方法 그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텍스트의 解釋方法일 수 없다면, 즉, 人文科學의 方法이 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方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解釋學的 解釋

方法을 고려하고자 한다.

(III)

文字 그대로 볼 때 解釋學的 解釋이란 개념은 同意反復의 진술로 무의미하다. 그러나 精神分析的·現象學的 그리고 構造主義가 다 같이 人文科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方法論이라고 볼 때, 解釋學的이란 개념은 위의 方法論에 관한 것으로서, 人文科學의 목적에 관한 개념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解釋學은 슈라이어마하(Schleiermacher), 딜타이(Dilthey), 하이데거(Heidegger), 가다마(Gadamar), 그리고 리페르(Ricoeur)에서 제시된 hermeneutics를 지칭한다. 이런 뜻에서의 解釋學은 텍스트 더 나아가서는 人文科學의 方法에 대한 새로운 理論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위의 哲學者들의 解釋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슈라이어마하에 있어서 한 텍스트를 쓴 사람의 意圖의 발견에 초점이 가고, 딜타이에 있어서 한 텍스트의 歷史性에,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른바 前理解(Vorverstehen)에, 가다마르에 있어서 解釋者의 歷史·社會的 콘텍스트를 지칭하는 이른바 地平線에 초점이 돌려지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들은 텍스트는 說明의 對象이 아니라 理解의 對象이며, 認識의 기능은 사물 현상의 因果의 關係의 발견이 아니라, 經驗자체 즉 우리들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觀念的存在인 意味를 포착하는데 있다고 보는 現象學과 통한다. 기존 解釋學에 대한 이러한 見解에서 리페르는 기존 解釋學을 일종의 넓은 뜻에서의 現象學的 方法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方法에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現象學的 方法과 構造主義를 서로 보완하여 통합하는 方法으로서 解釋學이란 개념을 쓰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리페르가 쓰고 있는 뜻에서 解釋學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그의 理論을 검토하면서 人文科學의 方法論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러한 方法이 함포하는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認識을 고찰하기로 한다.

앞서 人文科學의 가장 기초적 문제는 그것이 自然科學과 같은 方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없느냐하는 문제가 있다 했다. 自然科學의 양식은 說明的이다. 한 개별적인 現象이 일정한 原理에 의해서 論理的으로 推出될 때 그 개념적인 現象이 說明됐다고 말할 수 있다. 험펠(Hempel)의 이른바 法涵모델, 즉 假說演擇모델(Covering law model)은 說明的 앞의 論理的 構造를 典型的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人文科學의 對象이 같은 방식으로 說明될 수 있는가? 가령 하나의 陳述, 하나의 文學作品이란 개별적 現象이 一定한 因果原理에 의해서 演擇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령 社會的條件, 또는 한 作家의 心理的條件에 의해서 하나의 作品이 因果的으로 演擇된다고 할 때 우리는 人文科學도 自然科學과 같은 方法으로서 說明的이어야 한다는 主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說明이 可能하다해도 과연 우리는 作品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作品을 안다는 것은 物

理的次元에서 본 言語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言語의 뜻을 아는데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人文科學의 隘은 自然科學에서의 隘과 근본적으로 그 양식이 달라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한 隘의 양식을 說明的인 것과 구별 대조해서 理解的 隘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論理에 수궁이 된다면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기본적 문제, 즉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說明과 理解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說明的 隘과 理解的 隘과의 시비는 비단 自然科學과 非自然科學과의 사이에서만 야기될 뿐만 아니라, 非自然科學의 전형적인 例가되는 人文科學自體內에서 다시 고개를 치른다. 비록 人文科學은 그것의 對象을 因果的으로 說明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理解되어야 한다고 同意하더라도, 그 理解의 方法에 있어서 그것이 說明的이어야 하느냐 理解的이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나온다. 바꿔 말하자면 言語로 된 作品의 意味도 說明될 수 있으며, 꼭 그렇게 함으로써만 科學으로서 人文科學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說明을 가려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기 因果의 原理에 의한 說明과 契約的 原理에 의한 說明으로 불릴 수 있다. 개별적인 사과가 떨어지는 現象이나 潮水의 現象은 引力이라고 부르는 自然의 原理에 의해서 說明되고 개개의 車, 말 등의 움직임은 將棋라는 原理에 의해서 설명된다. 原理가 自然的인 것을 말한다면 原理은 人爲的인 것을 가리킨다. 將棋라는 혹은 言語라는 人爲的 現象은 原理에 의해서 說明될 수 있고 또 꼭 그런 原理에서만 理解된다. 역시 人爲的인 言語現象인 한 作品이 둘째번 뜻에서 說明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人文科學과 自然科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연후에도 다시금 人文科學의 隘의 양식이 說明的이나 理解的이나 하는 사실에 대한 시비는 위와같은 뜻에서의 說明的이란 말이 이해될 때 충분히 납득된다.

人文科學이 뜻하는 作品이란 對象의 解釋이라는 점에 일치하면서도 現象學的인 입장과 構造主義的인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것은, 前者가 理解만을 주장하는데 반해서 後者는 좁은 의미에서의 說明만을 고집하는데 있다. 그러나 리퍼르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실상 위의 두가지 입장은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활동인 解釋의 서로 보충하는 변증법적 양면을 나타내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한 作品이 言語의 表現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그리고 그러한 作品은 어떤 사실, 경험 혹은 생각 또는 意圖의 表現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作品의 解釋, 즉 作品의 意味는 物理的 혹은 論理的 言語自體의 說明에 있지 않고 그것이 表象하는 바를 그 밖에서, 즉 言語 밖에서 찾아야함은 당연할 것 같다. 그렇다면 作品의 의미는 作家가 知覺했다고 보는 現象, 作家가 느꼈다고 보는 경험 혹은 作家가 뜻했다고 보는 어떤 意圖등이 될 것이다. 한 作品의 現象學的 解釋이란 눈앞에 있는 作品이란 言語의 窓門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 된다. 그리고 言語 속에 비쳐졌다고 가정된 이러한 意味는 因果的 또는 論理的 分析으로 說明될 수 없고, 우리들의 直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綜合的認識활동인 理解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言語는 指向的 主體者와 그가 의도하는 言語 밖의 무엇과 떼어서는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위와 같은 現象學的 解釋의 이론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言語를 그 밖의 것의 단순한 表現道具로 전제하는 점에서 現象學的 解釋方法은 큰 착오를 범하지 않는다 해도 일방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 言語는 단순히 그밖의 表象이나 表現일 수는 없다. 言語밖의 現象이나 言語表現者라는 主體者를 떠나서 言語의 의미가 생각될 수 없더라도, 즉, 그것이 現象이나 主體者의 생각의 表象 혹은 表現이라 해도 일단 그러한 것들이 表象되거나 表現되는 순간 言語는 어느 정도 自律性을 갖고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人文科學의 적어도 一次的 認識對象은 우선 作品이라고 부르는 言語, 즉 텍스트 自體이지 그것과 독립된 現象이나 作家의 意識內容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했을 때 우리는 現象學的 입장에서 構造主義의 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人文科學이 알고자 하는 對象이 텍스트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言語라고 할 때, 그러한 言語를 認識한다는 것은 그것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意味는 마치 개별적인 將棋의 움직임은 將棋의 規則을 앞으로써만 理解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原則 속에서만 理解될 수 있다고 할 때, 한 텍스트의 解釋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構造를 밝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해서 現象學的 입장에서 말하는 텍스트 밖의 意味의 理解도 우선 言語的인 意味에 근거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言語의 意味는 言語構造에 의해서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흔히 생각되는 바와는 달리 說明을 떠난 理解는 없다. 다시 말해서 說明의 次元을 떠난 완전한 解釋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경우에 따라 構造主義가 함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言語의 構造自體만으로는 意味가 있을 수 없다. 한 텍스트라는 言語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되는 것은 그것이 그 텍스트 밖의 무엇인가의 表象 혹은 表現이라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意味는 그것이 表象 혹은 表現한다고 믿어지는 텍스트 밖의 무엇과 關係됨으로써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關係는 分析的 說明의 문제가 아니라 直觀的 理解의 문제이다.

이와같은 論理가 맞는 것이라면, 構造的 說明에 의해서 밝혀진 텍스트의 뜻은 現象學的 理解에 의해서 뿌리를 찾고, 그와 동시에 꺼꾸로 後者は 前者에 의해서 客觀性을 굳힌다는 결론이 선다. 바꿔 말하자면, 現象學的 접근과 構造主義의 方法 혹은 理解와 說明은 단 하나의 統一的인 作業인 解釋이란 과정속에서 辯證法的關係를 이루는 대치 상보의 兩面 혹은 두 단계를 가리킴에 지나지 않는다.³⁾ 그렇다면 결국 解釋에 있어서의 巡還性, 즉 이론 바 解釋學的 巡還의 論理는 숙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 巡還性은 踏步的인 것이 아니라 辯證法的인란 點에서 發展의 성격을 內包하고 있다. 모든 巡還의 論理가 일괄적으로 否定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Fort Worth,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pp. 71-88).

(IV)

텍스트의 解釋과 관련된 現象學과 構造主義, 理解와 說明, 또한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分析과 考察은 人文科學에 있어서 解釋과 評價와의 相關性, 科學性, 그리고 人文科學 자체만의 영역을 넘어서서, 認識과 그 對象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科學의 문제와 評價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아인슈타인의 相對性原理가 核武器를 가능케 했다해도 科學的 理論으로서 相對性原理가 맞는다든가 틀렸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이념적 입장에서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시비와는 다른 문제이다. 相對性 原理는 科學的인 眞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의 人文科學의 문제는 認識의 문제에 제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解釋 목적은 오로지 그 텍스트가 무엇인가, 텍스트의 意味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텍스트 解釋이라는 認識作業은 사실상 그 텍스트를 評價하고 감상하기 위한 준비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리 말해서 自然科學의 목적이 대상에 대한 認識의 문제라면 人文科學의 근본적 목적은 실상 解釋이 아니라 評價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실사 解釋과 評價를 떼어 놓고 解釋이 認識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텍스트의 解釋이란 認識自體에 評價作用이 이미 개입되고 꼭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하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텍스트의 言語가 指稱하는 대상이나 言語가 말하는 의도를 오직 꼭 한가지라고 지적할 수 없다면 텍스트의 他律的 意味를 찾아내려는 現象的 解釋은 역시 解釋者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관점에 지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主觀性을 배제하기 위해 한 텍스트를 쓴 作家의 意識보다는 텍스트 自體의 構造를 밝혀겠다는 構造主義的 解釋도 앞서와 똑같은 난점을 벗어날 수 없다. 한 生物的 人間의 신체의 構造가 空間的, 生理學的 化學的 또 物理學的 입장에서 다같이 밝혀질 수 있듯이 한 텍스트의 言語의 構造도 수 많은 각도에서 밝혀지고 설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각기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構造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構造에 관심을 두는가하는것은 解釋者의 主觀的 意圖에 의해서, 따라서 評價的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둘째,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眞은 그 客觀性이 自然科學에서처럼 확고하지 않다. 왜냐하면 現象學的 直觀을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그러한 認識은 결코 實證性에 의해서 客觀性을 확보하는 自然科學과는 다른 認識의 次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科學性이 實證的 客觀性을 의미한다면 人文科學은 실상 科學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構造的 分析이 人文科學의 主觀性, 즉 非科學性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構造主義의 旗手들인 바르뜨나 혹은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自身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人文科學은 결코 엄격한 과학 즉, 嚴正科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한 作品의 構造的 分析은 여러가지가 同時에 가능하고 따라서 唯一하고 一律的인 構造만도 주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앎은 相對的이며 主觀性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人文科學이란 개념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科學이란 개념의 定義에 달려있다. 科學이란 말에 원래 앎이라는 뜻이 있다면, 어떤 앎이 自然科學에서와 똑같은 實證合理性을 갖출 수 없다해도 그것이 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合理性을 띠고 있다면 그러한 앎을 科學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合理性은 반드시 實證性과 一致하지 않는다.

세째, 人文科學의 解釋에 대한 고찰은 그 科學이 지향하는 理想的인 앎은 絕對的인 것, 즉 絕對的인 眞理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동시에 그러한 眞理는 論理的으로 보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現象學理解와 構造的인 說明의 辯證法的인 발전이란 주장은 解釋이 어떤 絕對的인 眞理發掘에 접근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사실 解釋學 즉 hermeneutics은 숨겨진 秘密을 밝혀내는 神, 헤르메스(Hermes)에서 발생한 말이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眞理를 알 수 있는 헤르메스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그냥 그대로 들어내 보이는데 아니라 풀어낸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다면, 즉 解釋(interpretation)해야만 한다면, 그러한 眞理는 있는 그대로의 것, 즉 絕對的인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온다는 것, 解釋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元來 있는 것을 만 것으로 바꿔놓는 作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原始的인 眞理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무한한 解釋의 解釋의 또 解釋이란 시지프스나 또는 페네로프 같은 운명에 처해 있게 마련일 것이다. 한라디로 말해서 우리의 순수한 處女的인 眞理에 대한 욕망은 부득히 썩르트르의 人間的인 노력처럼 헛된 노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眞理가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데리다(Derrida)는 단도직입적으로 現存(Présence), 즉 絕對的인 眞理, 예를 들면 하이벡커가 알레테이아(aletheia)라고 부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푸라톤에서 하이벡커, 그리고 構造主義者에까지 이르는 모든 哲學의 근본적으로 그릇된 前提라고 주장한다. 오로지 解釋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극히 과격한 主張은 비단 人文科學의 앎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정한 自然科學에도 다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認識一般, 眞理一般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데리다에 의해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傳統을 달리는 파인, 굿트만, 로퍼, 또는 쿤, 웨이야아멘트와 같은 이른바 分析哲學者에 의해서 강력히 주장되어 왔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다. 만일 이러한 主張이 옳다면 絕對的인 眞理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잃게되며, 앎의 相對性에 대한 不滿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認識 일반에 대한 근본적인 哲學的인 문제에 접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별도의 分析과 考察을 요구한다.